

안경 이야기

콘택트렌즈



1962년에 발간된 미국 「호리데이」란 잡지에 의하면 미국에는 400만명이 콘택트·렌즈를 쓰고 있는데 대부분이 40세이하의 젊은 사람들로 주로 미용 목적으로 안경 대신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 우리 나라에서도 1960년대부터 콘택트렌즈가 보급되기 시작하여 현재 상당히 많은 사람이 애용하고 있어 차차 그 수요가 증가되

어 안경 뜯지 않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같이 현대의 총아로 각광을 받게 된 콘택트렌즈의 역사를 살펴보면 1845년 『존·하아셀』이 「각막에 이상이 있을때 동근형의 유리 캡슐속에 투명한 동물성 재리를 넣은것을 눈의 표면에 대면 비록 일시적이나마 똑똑히 보이지 않을까」하는 아이디아를 제공한 것이 그 시초이다.

그런데 콘택트렌즈라는 용어를 만든것은 스위스 의사인 『오이겐·푀』인데 이사람은 1887년에 콘택트렌즈에 관한 독자적인 실험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적어도 사람에게 실용화되기 시작한 것은 1934년경이며 1940년초에는 여러가지 형의 콘택트렌즈가 제조되었으나 이를은 비교적 크고 장시간 참고 끼울수 있는 것이 못되어서 새로운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달려들었을뿐 1940년 후반까지도 인기가 없었다.

그러나 1950년 말에서 1960년대 중반에 걸쳐 더 이상 작아질 수 없을 정도로 크기도 작아지고 또 합병증도 없이 비교적 무난하게 쓸 수 있도록 되었다.

그러나 재료가 얇은 플라스틱(페칠·메타크리레이트)으로 되어 있는데 역시 이물감과 오래쓰면 통증때문에 뜯는 사람이 있는점이 결점이었다.

= 1  
= 8  
= 4  
= 5  
= 네  
= 에  
= 하  
= 아  
= 셀  
= 이  
= 첫  
= 힌트  
= 寶  
= 用  
= 化  
= 된  
= 것  
= 은  
= 60  
= 년  
= 대부  
= 터

따라서 1971년에 미국의 B&L 회사에서 물을 함유하는 달랑 달랑한 재질(HEMA)인 콘택트렌즈를 실용화시켜 시장에 내어 놓게 되여 종래의 콘택트·렌즈를 아파서 도저히 끗끼우는 사람이나 장시간 콘택트렌즈를 사용해야 되는 사람에게 큰 복음을 안겨주었다.

그뿐 아니라 백내장 수술후의 시력교정에도 좋고 또 수분을 빨아드리는 성질과 각막을 보호하는 작용을 이용해서 약물의 보다 효과적인 투여방법으로도 이용되고 또 각막의 여러 질환의 치료에도 사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결점도 있어서 간수하기가 좀 번거롭고 심한 난시가 있는 경우는 시력교정이 잘 안된다. 따라서 종래의 콘택트렌즈를 쓰는것이 좋은지 또는 달랑 달랑 한 소프트 콘택트렌즈를 쓰는것이 적당한지는 전문의의 진찰을 받고 눈의 상태에 따라서 결정해야 된다.

흔히 어떻게 이 물질을 눈속에 넣고 견딜 수가 있겠는가고 지레 겁을 먹는 분이 계실텐데 우리 눈에는 눈물이 있어 콘택트렌즈는 이 눈물층(層)위에 표면장력으로 부착하여 떠 있게 됨으로 익숙해 지면 대부분 불편없이 쉽게 끼울 수 있다.

콘택트렌즈는 약 80%가 미용 목적으로 끗우기 때문에 특히 젊은 여성에게 인기가 있다. 그러나

꼭 콘택트렌즈라야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원추각막(圓錐角膜), 고도근시, 원시, 난시, 백내장 수술후의 시력교정(특히 한눈), 부정난시, 부동시안(不同視眼) 등이며 보통의 안경으로는 충분한 시력이 개선되지 않은 경우에 좋다.

그러나 전안부(前眼部)에 급성 또는 만성의 염증, 즉 결막염, 각막염, 누낭염등이 있을 때는 착용할 수 없다. 또는 신경질적인 사람, 눈이 쉽게 충혈되는가 눈물이 흐르는 사람, 또 눈물의 분비가 적은 사람에게도 부적당하다.

콘택트렌즈를 사용하려면 약 1주일간 그 사용법을 연습해야 하며 그 후에는 잠 짤때는 빼고 아침에 다시 끗우는데 보통 콘택트렌즈는 8시간 내지 10시간을 넘지 않는것이 좋고, 소프트렌즈는 더 오래 끗 수 있으나 자기전에는 빼야된다.

콘택트렌즈의 사용에 있어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선 안과의사에게 진찰을 받아서 안질의 유무 및 콘택트렌즈의 적응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이어서 적합한 렌즈를 결정하기 위해 세밀한 검사를 받은 연후에 만들어야 한다.

〈필자=가톨릭大附屬聖母病院眼科科長〉